

# 당국 “남아공발 오미크론 변이 BA.5, 조만간 우세종 전망”

### BA.5 검출 크게 증가...국내 24.1%, 해외 49.2% 차지 “BA.5 변이, BA.2보다 전파력 35% 빨라...면역회피도”

방역 당국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중 최근 크게 증가하고 있는 BA.5가 조만간 우세종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전망했다.

임숙영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5일 오전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코로나19 변이 검출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6월5주 오미크론형 변이 검출률은 국내 감

염과 해외 유입에서 100%로 확인됐다.

오미크론 세부계통 검출률 분석 결과, 총 276건이 발생해 지난주 255건보다 소폭 증가했다. 앞서 2주 전에는 119건이 발생한 바 있다.

미국에서 유행을 주도한 BA.2.12.1 확진자는 55명,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유행한 BA.4와 BA.5 확진자는 각각 36명, 185명이 추가로 발

생했다.

6월4주와 비교해보면 BA.5 검출률이 일주일 사이 크게 증가했다. 국내감염 사례는 7.5%에서 24.1%로, 해외유입 사례는 32.8%에서 49.2%로 늘어났다.

임 단장은 “해외 유입의 사례에서 BA.5의 검출률은 49.2%라서 이미 우세종화됐고, 국내 사례에서의 BA.5의 검출률도 이번 주에 크게 증가했다”며 “조만간 우세종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당국은 BA.5의 확산속도가 빠르고, 면역회피 성향이 높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임 단장은 “최근 영국 보건청 자료에 의하면

검출 증가 속도가 BA.2 대비해서 35.1% 빠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돌과감염자에 대한 중화능을 연구한 결과, BA.2 대비해서 3배 이상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면역회피 성향이 있다”고 말했다.

당국은 BA.5 확산이 신규 확진자 증가 속도를 빠르게 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면서도 중증도 미치는 영향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방역기조를 강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단장은 “BA.5와 관련해서는 현재까지는 중증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지는 않다”며 “사회적 거리두기나 입국제한 등 방역

강화 조치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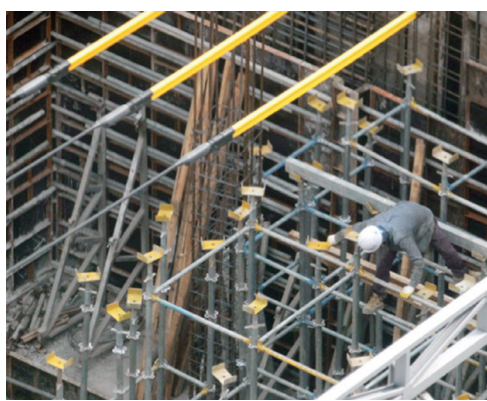
이로써 누적 확진자는 BA.2.12.1 총 352건, BA.4 총 79건, BA.5 총 395건, 재조합변이 총 25건(XE 7건, XQ 15건, XM 2건, XN 1건)이 됐다.

미국은 BA.2.12.1, BA.4, BA.5 변이 유행으로 발생이 소폭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사망자 수는 최근 2주간 줄어들었다.

BA.4, BA.5 변이가 우세종화된 남아공에서는 최근 6주 연속 발생이 감소했으나 사망자는 소폭 증가했다.

김재환기자

## ‘용접 폭발·트럭 끼임’ 노동자 잇단 사망



울산과 경북 영덕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가 나섰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3시10분경 EG울산의 자원순환 그린에너지 사업 슬러지 건조시설 공사현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60대 하청 노동자 A씨는 용접 중에 원인을 알 수 없는 폭발로 얼굴과 목 등에 3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다가 전날 밤 사망했다.

EG울산의 해당 사업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지난 4일 오전 9시께는 경북 영덕의 상수도 관망 정비공사 현장에서 끼임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덤프트럭 기사 B씨는 건설폐기물을 실으려고 대기하던 중 갑자기 트럭이 이동하면서 차량과 민가 담벼락 사이에 몸이 끼여 숨졌다.

해당 사고가 발생한 현장의 시공사는 지디종합건설로,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에 해당돼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해당 사업장에 즉시 작업중지 조치를 내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올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유우나기자

## 여변 “육아휴직 후 불리한 직무 차별’ 대법원 판결 환영”

### “육아휴직 후 복직시 차별 안받아야”

육아휴직 후 다른 직종으로 복직시키면서 실질적인 불이익을 준 것은 차별이라는 대법원 판단에 대해 한국여성변호사회가 “누구도 임신·출산·육아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여변은 5일 “육아휴직을 다녀오기 전에 맡았던 업무와 비교했을 때 권한이 줄어들고 직무 내용이 달라졌다면 부당전직에 해당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을 적극 환영한다”는 성명서를 냈다.

이어 “이번 대법 판결은 육아휴직 이후 부여된 직무 권한이 이전보다 줄어들고 직무내용이 달라졌다면 해당 규정에 반하는 것임을 확인한 것”이라고 의미를 전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는 여전히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하기 어려운 사업장이 많

고, 육아휴직 이후 불이익한 업무에 배치되더라도 근로자가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번 대법원 판결을 통해 누구도 임신·출산·육아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기를 바란다”며 “출산과 육아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사회적 분위기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천대영 대법관)는 롯데쇼핑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전직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판결의 요지는 육아휴직 후 복귀 시 형식적 직급은 같더라도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 실질적인 임금 수준 등을 하향시키는 전직은 차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육아휴직 전 롯데쇼핑에서 생활문화매니저로 근무한 A씨는 1년간 휴직한 후 복직하는 과정에서 냉장·냉동 영업담당으로 발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남녀고용평등법 19조 4항은 육아휴직이 끝난 근로자가 이전과 같은 업무 및 임금을 직무로 복귀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을 통해 육아휴직 후 복귀 시 전직의 차별 여부 판단과 관련, 근로환경의 변화나 조직의 재편으로 인해 다른 직무를 부여해야 할 필요성 여부 및 정도, 임금을 포함한 근로조건이 전체적으로 낮은 수준인지, 업무의 성격·내용·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판단기준도 처음으로 제시됐다.

정승호기자

## 목포 앞바다서 80대 여성 숨진 채 발견

### 물에 빠진 경위와 정확한 사인 조사 중

목포 앞바다에서 8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사인 조사가 나섰다.

5일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38분경 목포시 연산동 압해대교 인근 해상에서 80대 여성 A씨가 표류하고 있는 것을 인근 산단 노동자가 발견해 해경에 신고했다.

심정지 상태로 수습된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해경은 A씨가 물에 빠진 경위와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고 있다.

목포=기동취재본부

## 광주연극협회, 배우 성폭력 의혹 극단 대표 등 3명 제명



광주연극협회가 성폭력 의혹을 받는 극단 대표 등 3명에 대해 제명 징계 처분을 내렸다.

5일 광주연극협회에 따르면, 광주연극협회

### 한국연극협회 주관 행사·업무 참여 불가

이사회는 전날 열린 긴급 이사회에서 여성 극단원 성폭력 의혹을 받는 극단 대표 등 회원 3명을 제명했다.

제명 처분에 따라 징계 대상 회원 3명은 한국연극협회에서 주관하는 행사와 관련 업무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광주연극협회 징계수위는 ‘영구제명’, ‘제명’, ‘자격정지’, ‘견책’ 등이 있다.

광주연극협회는 소속 회원 전체를 대상으로 익명 전수 조사를 벌여 유사 사례를 파악한 뒤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광주연극협회 관계자는 “피해자 입장을 우

선적으로 고려해 단호한 조치를 취했다”며 “2차 가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연극계성폭력사건해결대책위는 광주에서 활동하는 극단 2곳의 대표와 연출가 등 3명이 작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난 2012년~2013년, 2016년에 극단 소속 배우 2명을 성폭력했다고 주장했다.

피해를 주장하는 배우 2명은 성폭력 피해 관련 고소장을 광주 서부경찰서에 제출했다.

기동취재본부

#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

